가슴으로 살자

시끄러운 세상

보고 듣고 싶지 않아

머리 떼어 버리고

천년 세월 가슴으로 사는

목 없는 부처님

말로선 다할 수 없는 사연

깊은 정적 묻어놓고

가지산 자락 좌대 삼아

무겁게 눌러앉은 마음

보고 듣고 말하면서

무명 속에 지은 죄,

다시 죄지을 것 같은

머리 떼어 징검다리 놓고

가슴으로

가슴으로 살자

Revision #1
★Created 8 March 2025 07:29:02 by 강근숙
Updated 8 March 2025 07:30:00 by 강근숙